꿈, 무대위에 서다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제56회 호남예술제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국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참가자들의 경연 모습을 화보로 싣는다.

/사진=최현배·김진수기자 choi@kwangju.co.kr

손끝에 맺힌 설레임

은상을 수상한 이혜인(전남예고 2)양의 ‘꿈 그리고 설레임’

소녀들의 가락

12줄 가락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싣는다. 송원초등학교의 가야금 병창.

발레리나 날다!

최고상을 수상한 김영지(동아여고 3)양이 ‘La bella’에서 멋진 비상을 보여주고 있다.

24개 토슈즈가 빗방울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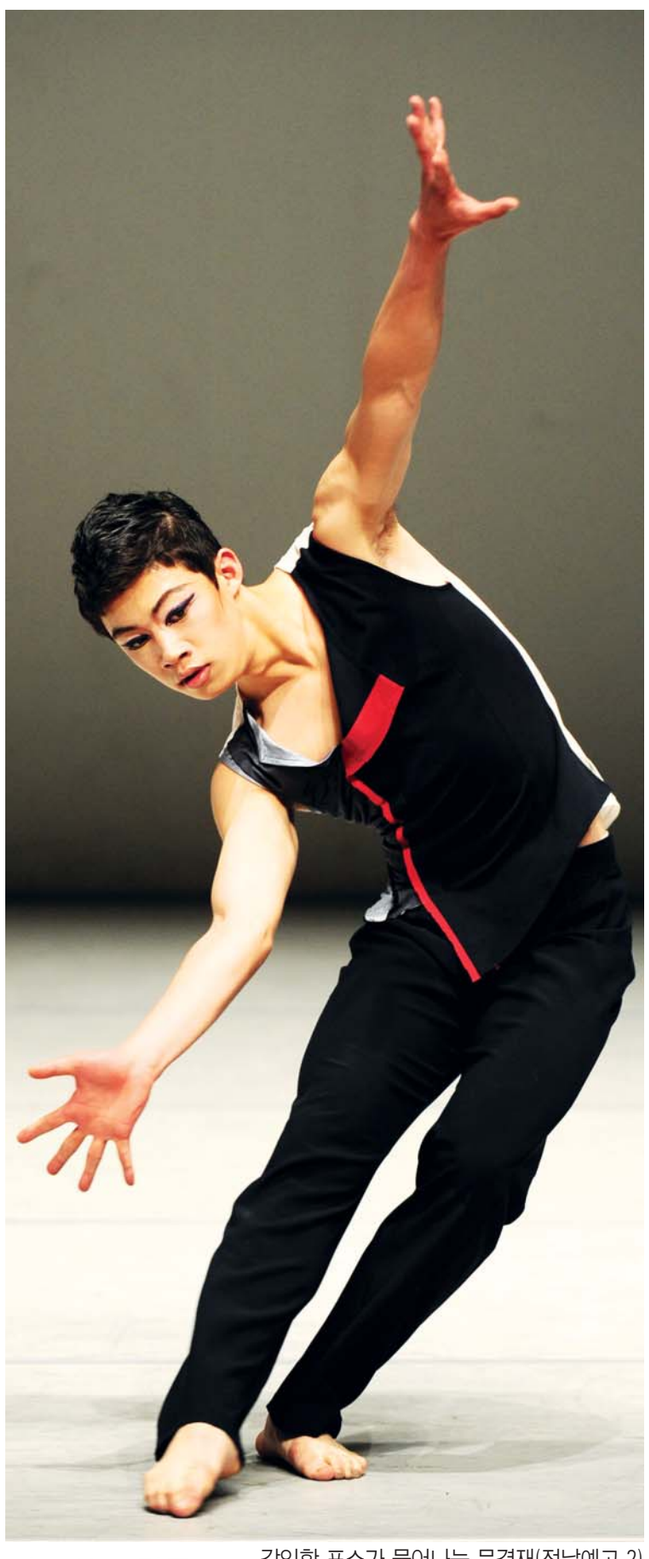
어린 발레리나들의 앙증맞은 모습이 눈길을 끈다. 만호초등학교의 ‘숲속 이야기’

몸짓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

정열적인 무용수들의 기운이 무대를 꽉 채운다. 최고상을 수상한 수피아여고의 현대무용 ‘포커스’

건반위 고사리손

멋진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이인서(효덕초 1)양이 진지한 모습으로 경연에 임하고 있다.



내 꿈은 이만큼…

강인한 포스가 묻어나는 문경재(전남예고 2)군의 ‘침범’